

PHILLIPS READERS
ACADEMY

필립스 리더스 아카데미

어법으로 세계를 고치는 자들의 이야기

제1부 · 문장의 뼈대

첫 번째 이야기

동사는 심장이다

전체 100화 中 제1화

프롤로그

포탈은 오답에서 열린다

연필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이 교실을 채우고 있었다. 강도윤은 영어 수행평가 문제지 앞에서 삼 분째 같은 문장을 노려보는 중이었다. 국어라면 눈 감고도 백점이었지만, 영어 서술형 앞에만 서면 그의 손끝은 늘 얼음처럼 굳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책상 위에 노란 사각형을 그렸다. 도윤은 한숨을 한 번 내쉬고, 별생각 없이 펜을 눌러 이렇게 적었다.

He don't know the answer.

그 순간이었다. 문제지 위의 잉크가 스스로 파랗게 번지더니, 종이 전체가 물결처럼 일렁였다. 도윤이 "어?" 하고 소리 낼 틈도 없이, 빛이 그를 통째로 삼켜버렸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더 이상 교실에 있지 않았다.

발밑에는 오래된 돌바닥, 머리 위로는 우거진 담쟁이덩굴에 덮인 침탑들. 마치 수백 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법한 거대한 석조 건물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문 위쪽, 세월에 닳은 금박 글씨가 오후 별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PHILLIPS READERS ACADEMY

도운이 멍하니 그 글자를 올려다보고 있을 때, 정문 옆에 세워둔 낡은 책 한 권이 저 혼자 페이지를 팔랑이더니 이내 사람의 형상으로 부풀어 올랐다. 하얗게 센 수염, 깃펜을 깎아 만든 지팡이, 그리고 어딘가 짓궂은 웃음기가 감도는 눈매.

「어서 오게, 신입생.」

노인이 지팡이 끝으로 도운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는 이 학원을 오랫동안 지켜온 문형이라 하네. 자네처럼 겁먹은 얼굴로 떨어지는 아이들을 벌써 몇 세기째 맞이하고 있지.」

「신입생이요…? 저는 그냥 문제를 풀다가—」

도운이 말끝을 흐리자 문형이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거야. 자네가 방금 쓴 문장, 'He don't'. 그 오류가 세계의 슬기를 뜯어버렸어. 필립스 리더스 아카데미는 지구 어딘가에서 태어나는 어법의 오류들이 모여드는 곳이거든. 그리고 오류란 것은, 방치하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땅이 낮게 울렸다. 안개 사이로 진흙빛 형체가 걸어 나왔다. 문장 모양으로 뭉쳐진 덩어리, 그 가슴팍에는 큼지막한 글씨가 상처처럼 새겨져 있었다.

HE DON'T KNOW

「—괴물이 된다네.」

문형이 담담히 말을 이었다.

「저건 자네가 만든 녀석이야. '수일치 임프'. 자네가 고쳐야, 자네 손으로 사라져.」



제 1 장

동사는 심장이다

임프가 진흙 발을 무겁게 끌며 다가오자 도운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문형이 지팡이를 가볍게 휘두르자 임프의 움직임이 순간 얼어붙듯 멈췄다.

「겁먹을 것 없네. 영어 문장이라는 건 결국 사람의 몸과 같아.」

문형이 도운 곁에 나란히 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빠대는 주어와 동사, 그 둘뿐이야. 나머지는 전부 살이고 옷이지. 그런데 저 녀석은—」 그가 임프를 가리켰다. 「—심장이 아파서 저 모양이 된 거야.」

「심장이요?」

「그래. 그런데 그 애길 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

문형이 지팡이 끝으로 허공에 작은 원 세 개를 그렸다. 원 안에 각각 희미한 글자가 떠올랐다 — 나, 너, 그것.

「세상의 모든 명사와 대명사는 '인칭'이라는 걸 갖고 있어. 말하는 사람 자신, 그러니까 나·우리는 1인칭. 그 말을 듣는 상대, 너·너희는 2인칭. 그리고—」

「그리고요?」

「그 나머지 전부야. 그, 그녀, 그것은 물론이고, 자네 이름도, 저 책상도, 방금 사라진 그 임프까지도. 나와 너를 뺀 세상 모든 것이 3인칭이지.」

도윤이 눈을 깜빡였다. 「그럼… 저는 1인칭이고, 임프는 3인칭이었네요?」

「바로 그거야. 그리고 3인칭 중에서도 '하나'만 가리키면 3인칭 단수, 여럿이면 3인칭 복수라고 불러. He는 그, 딱 한 사람이니까 3인칭 단수야.」

인칭이란 문장 속에서 누가 말하고, 누가 듣고, 누구에 대해 말하는
지를 나누는 기준이다.

1인칭 — I(나), We(우리) · 2인칭 — You(너, 너희)

3인칭 — He, She, It, 그리고 나와 너를 제외한 모든 사람·사물 (이름, 사물, They 포함)

필 립 스 문 법 서 · 제 1 조

「인칭을 모르면 수일치는 절대 못 해.」 문형이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왜냐하면 동사 뒤에 -s를 붙일지 말지가 바로 이 인칭과 수, 딱 그 두 가지에 달려 있으니까. 이제 왜 자네 문장이 무너졌는지 정확히 보여주지.」

「동사가 이 문장의 심장이라면, 주어는 그 심장이 뛰는 박자를 정하는 지휘자야. 주어가 He처럼 3인칭 단수라면, 현재형 동사는 반드시 그 뒤에 -s를 붙여서 '나 지금 3인칭 단수의 박자로 뛰고 있어요'라고 알려줘야 하네. 그런데 자네는 심장한테 틀린 박자를 줘버린 거야.」

주어가 3인칭 단수(He / She / It / 단수명사)이고 현재형이면, 동사는 반드시 -(e)s를 취한다. 부정문의 do는 **does**로, don't는 **doesn't**로.

He ~~don't~~ know → He **doesn't** know

필 립 스 문 법 서 · 제 2 조

도운은 떨리는 손을 임프를 향해 뻗었다. 가슴 위에 새겨진 글자가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그가 떠올린 문장으로 고쳐 쓰였다.

HE DOESN'T KNOW

순간 임프는 오래된 종잇조각처럼 부스러지며 바람에 흩어졌다. 정적이 내려앉았다.

「좋아, 첫 승리군.」

문형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건 맛보기일 뿐이야. 진짜 성가신 임프들은—」 그가 말을 고르듯 잠시 멈췄다. 「—'진짜 주어'를 숨기고 다니는 놈들이거든.」



제 2 장

진짜 주어를 찾아라

그 말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복도 저편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울렸다.

도윤의 반 친구이자 어쩐지 이 세계에도 함께 끌려온 듯한 박정오가 숨을 몰아쉬며 뛰어오고 있었다.

「도윤아! 나도 방금 몬스터한테 죽을 뻔했어!」

정오가 문제지를 흔들어 보이며 억울하다는 얼굴을 했다.

「근데 나는 분명히 동사에 -s도 붙였는데 왜 틀렸다는 거지?」

정오가 내민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The book on the shelves (is / are) mine.

정오는 그 옆에 자신만만하게 **are**라고 동그라미를 쳐놓았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서, 책 더미를 뭉쳐놓은 듯한 형체가 스멀스멀 자라나고 있었다.

「정오, 방금 자네가 저지른 실수가—」

문형이 손가락을 까딱이며 혀를 찼다.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실수야. 'shelves'가 복수형이라 눈에 가
까우니까 거기 맞춰 are를 골랐지? 하지만 그건 진짜 주어가 아니야.」

「그럼 뭐가 주어인데요…?」

「이 문장을 빼만 남겨서 다시 보게. 'on the shelves'는 그저 book을 꾸
며주는 수식어일 뿐이야. 옷이고 액세서리지. 옷을 벗기면 뼈대가 보이는
법이야.」

주어를 찾을 땐 전치사구·관계사절·분사구 같은 수식어를 괄호로 지
우고 남은 명사가 진짜 주어다.

The book (~~on the shelves~~) is mine. → 진짜 주어는 **book**(단수)

→ 동사는 **is**

필 립 스 문 법 서 · 제 3 조

정오가 떨어는 손끝으로 **is**라고 고쳐 쓰자, 등 뒤에서 자라나던 책더미
형체가 순식간에 쪼그라들며 사라졌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참았
던 숨을 몰아쉬었다.

「휴… 선생님, 이런 함정이 또 있어요?」

문형이 두 아이를 번갈아 보더니 지팡이 끝으로 바닥에 작은 원을 그렸다.
그러자 발밑에서 은은한 빛이 피어올랐다.

「물론이지. 이 구역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임프 세 마리를 오늘 소개해
주겠네. 이 셋만 확실히 잡으면, 자네들은 이 아카데미 초입의 수일치 임프
는 전부 물리칠 수 있을 거야.」



부 록 · 통 과 의 례

0. 다음 중 3인칭 단수가 아닌 것은? — ① He ② My dog ③ We ④

Jenny

정답 — ③ We. We(우리)는 말하는 사람 자신이 포함된 1인칭 복수다. He, My dog, Jenny는 모두 나·너를 제외한 '하나'를 가리키므로 3인칭 단수 — 현재형 동사에 -(e)s가 붙는다.

1. Each of the students in this class (has / have) his or her own locker.

정답 — has. "Each of + 복수명사"에서 빼대만 보면 주어는 **Each**(각각 하나 하나)이며, 이는 언제나 단수 취급한다. 뒤의 students는 수식어일 뿐이다.

2. The number of accidents on this road (has / have) increased sharply.

정답 — has. "The number of + 복수명사"는 '~의 수'라는 뜻으로, 진짜 주어는 **The number**(단수)다. (참고 — a number of는 '많은 ~'라는 뜻으로 복수 취급하니 혼동하지 말 것. 다음 이야기에서 제대로 다룬다.)

3. The students who study with Mr. Kim (is / are) preparing for the contest.

정답 — are. "who study with Mr. Kim"은 students를 꾸미는 관계사절, 곧 수식어다. 지우고 나면 The students ____ are preparing만 남고, 진짜 주어 students는 복수다.

임프	겉모습(함정)	진짜 주어	동사
수일치 임프	He don't	He (3인칭 단수)	doesn't
수식어 함정 임프	~ on the shelves	수식어 앞 명사	수식어 무시하고 일치
Each of 임프	Each of + 복수명사	Each (단수)	단수동사
The number of 임프	The number of + 복수명사	The number (단수)	단수동사

문장의 뼈대는 주어와 동사, 그 둘뿐이다. 동사를 정하기 전에 먼저 주어의 인칭과 수를 확인하고, 눈에 가까운 명사가 아니라 수식어를 지우고 남는 진짜 주어를 보라.



다음 이야기 — 「부분표현 좀비의 습격」

most of, part of, the rest of... 뒤에 오는 명사에 따라 통째로 바뀌는 수
일치.

도윤과 정오는 이번엔 학원 깊은 곳, 오래된 도서관에서 더 교활한 임프와
마주친다.